

장소기억의 재현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형성 구조 연구 -제주지역 조천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김 석 윤*·김 은 정**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이 스며있는 공간들을 공공의 땅으로 회복하고 기억의 장소로 전환, 장소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문화콘텐츠를 생성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민들이 오랜 시간동안 향유했던 정신세계가 담겨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크게 바뀌면서 마을의 고유성과 역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때문에 마을자원 활용은 공동체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주한 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지향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조천읍 조천리는 3·1만세운동의 고장이다. 조선시대까지는 육지부와 왕래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2대 관영포구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조천리 출신 인사들이 전통적으로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외부지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기억의 장소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 마을자원의 지역문화 콘텐츠 형성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을자원을 조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조사된 자원은 재분류의 과정을 거쳐 핵심테마를 설정하였다. 이후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보조테마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마을의 다양한 역사, 민속, 생활 등의 장소기억의 재현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형성구조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마을 공간 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상호 연결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마을 단위에서 문화콘텐츠 형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소기억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 주저자,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 공동저자,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주제어 :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지역문화콘텐츠, 장소성, 조천리

I. 문제제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이 스며있는 공간들을 공공의 땅으로 회복하고 기억의 장소로 진화하여 문화콘텐츠를 형성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장소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재현함으로써 문화콘텐츠를 생성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근대사회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미래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발굴이 지역민의 정체성 및 지역관광산업과 연결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문화콘텐츠가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역사문화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항일운동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 불리는 4·3사건, 한국전쟁 등과 관련된 기억이 지역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소의 기억이 재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장소’는 ‘장소성’을 획득하면서 사건에 대한 재인식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의식의 형성과 전승에 영향 미치고 있다. 장소에 대한 기억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역사적 사실과 결부하면 공동체의 기억이 되기 때문이다.

거대한 이야기가 해체된 오늘날 ‘역사(history)’는 더 이상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학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유적지를 둘러보는 유산관광을 물론이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역사영화’ 나아가 전통예술과 문화유산 등을 테마로 삼아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역사경관사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상품화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박진한, 2018: 363). 이처럼 장소성은 실체적이기 보다는 서사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맥락적인 것이며, 각자의 경험과 그에 따른 기억 혹은 상상에 의해 장소는 무한한 장소성을 가진다(정유진, 2018: 102).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조천마을의 역사생활민속 등에 대한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장소기억의 재현을 위한 역사기억 장소의 의미 분석과 재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조천마을은 조선시대 제주의 대표적인 관포였으며, 항일운동과 제주 4·3사건의 유산이 다층적으로 남겨져 있는 마을이다. 또한 반농반어의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민속과 생활자원이 폭넓게 분

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이며 생활적인 경험들은 각 장소에 각인되어 조천마을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장소를 재 해석하고 지역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조천마을 역사자원을 산업자원으로 전환시킬 때 마을 주민의 정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리 단위 마을의 문화콘텐츠 형성 과정과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장소기억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1. 문화콘텐츠와 장소성에 대한 이론

콘텐츠에는 예술성과 산업성이 담보되어 있다. 문화콘텐츠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자 다양하게 활용하는 도구들이다. 하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튼튼해야 한다. 모든 콘텐츠는 이야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정창권, 2010: 23~34). 세계 모든 나라는 콘텐츠의 원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성환(2013: 171~220)이 지적했듯이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분야는 그 소재가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한국인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정체성이 가장 확실한 분야이다.

임대근(2014: 18~19)은 문화콘텐츠가 가져야 할 가치와 속성으로 첫째, 문화콘텐츠는 인간중심적이어야 한다. 둘째, 문화콘텐츠는 심미적이어야 한다. 셋째, 문화콘텐츠는 대중적이어야 한다. 넷째, 문화콘텐츠는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콘텐츠란 인간 삶의 질적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문화적 전통과 현상을 특정한 매개체를 통하여 현대화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영준(2015: 167)은 문화콘텐츠의 창작은 꿈과 감동을 전달하는 창조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전문가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물과 공간(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뜻하며 개인적 의미로서 이야기를 만들어 말하는 것인데 사물과 사람의 본질을 전달하려는 과정에 개입되는 창조적인 활동이다(배진화·권기창, 2019: 77). 스토리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면 텔링은 매체에 맞는 표현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장소는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장소성’은 콘텐츠의 특징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다. ‘장소성’이란 집단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생활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 가지는 사회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호·임은미, 2008: 413; 배진희·권기창, 2019: 76~77 재인용).

장소가 위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장소성’은 장소가 지니는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성’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어떤 장소에 대해 느끼는 애착이며, 어떤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정근식(2007; 김석윤·김태일, 2012: 9 재인용)은 일반적으로 주검이 묻힌 장소와 이를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재현하는 장소, 추념하는 장소는 일치하지만 동일한 맥락의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추도하는 행사 장소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순례는 일차적 장소와 이차적 장소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매스 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장소의 재구성이 발생하기가 더욱 쉽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장소성’은 추모, 재현,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손로·윤지영(2020: 153~154)은 장소가 개개인에게 주는 체험, 느낌과 감정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장소 고유의 느낌과 경험의 발생이 서로 다른 장소 간의 차별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장소성’에 대한 정의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소성’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그곳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으로 인해 채워진 문화가 있는 공간이다. 사람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무의미한 공간에서 고유의 기능과 성격을 지니는 장소라는 개념이 형성된다(김석윤·김태일, 2012: 7). 따라서 장소와 기억은 서로 얽혀 있을 수 밖에 없다.

장소를 기반으로 한 오랜 기억을 지닌 것으로는 역사경관을 손꼽을 수 있다. 최근 역사경관의 보존과 활용이 도심 재생이 주요한 화두이다. 역사경관을 단지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지역성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다(Brian Graham, 2000; 하혜경·김한배·조윤승, 2018: 107 재인용).

왕휘휘·홍관선(2018: 230~234)은 장소 기억의 재현과 재설계를 통해 산업유산의 역사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연구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구역일수록 사람과 공간 전체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소기억은 재생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보전과 발전이 이뤄진다고 하였다.

정유진(2018: 102)은 지역의 특정장소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발견-재현-재장소화되면서 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재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소는 실제적인 의미지만 ‘장소성’은 서사에 의해 재구성되는 맥락적인 것이며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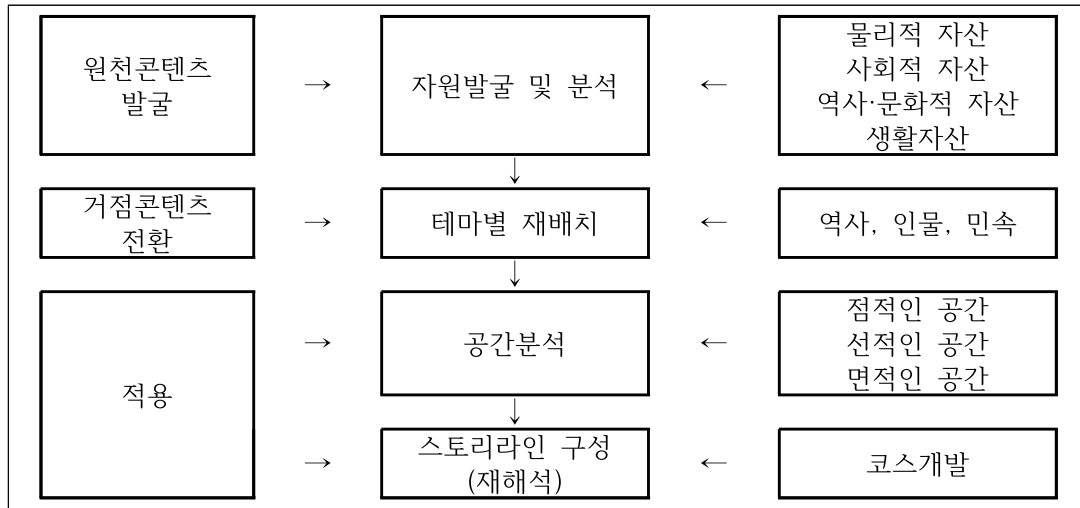
하는 주체에 따라 기억과 상상이 더해져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소성’은 무한성이 내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기억에 대한 올바른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현이 이루어질 때 지역문화 콘텐츠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소기억의 재현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형성과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장소성, 역사문화자원연구, 조천마을 역사, 공간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문헌 및 국내 관련 논문을 참고 하였다. 심층면접은 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에 스며있는 역사적 사실과 실제 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발굴된 장소자산은 우선 스토리의 맥락을 분석하여 장소성을 도출하고 핵심테마를 설정한 다음 구체화를 위한 테마를 부여한다. 테마에 적합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공간과 스토리를 연결한다(배진화·권기창, 2019: 78). 따라서 특정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가운데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원천콘텐츠와 거점콘텐츠로 구분하였다. 박영호(2010: 265)는 원천콘텐츠는 그 자체로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거점콘텐츠는 원천콘텐츠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콘텐츠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제에 따라 몇 개의 원천콘텐츠를 설정하고 이를 정점으로 유사한 성격의 거점콘텐츠를 결합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스개발의 절차는 남양희(2016: 5)가 제시했던 4단계 구성절차를 바탕으로 1단계 스토리 자원 발굴 및 분석, 2단계 테마별 재배치, 3단계 공간분석, 4단계 스토리라인구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개발된 공간과 스토리는 자원의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상호연계가 가능한 코스를 설계하였다.



[그림 1] 장소기억 재현을 위한 문화콘텐츠 형성 단계

코스개발에 앞서 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코스설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연구 참여자를 선택할 때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면담할 필요가 있다(Yin, 2013[2011]: 148; 류임량, 2016: 32 재인용)는 주장에 따라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해 단체별로 2명 이내로 추천을 받았다. 전체 5명²⁾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면접은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면접조사에서 미진한 내용이 발견되면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개인별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내용은 코스설계, 해설방법, 핵심테마, 사전 준비 등을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표 1> 면접 대상자 특성

연 번	소 속	경 력	나 이	주 해설 공간
1	제주43평화재단	20년	50대	43유적지
2	제주43연구소	20년	50대	43유적지

2) 베르토와 베르토 와이암(Bertaux and Bertaux-Wiame, 1981)은 표본의 크기가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과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연구자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표집은 계속 되어야 하고, 수집되는 자료가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과정에 대해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 없게 되면 이러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Mason, 2002[2010]: 194-195; 류임량, 2016: 33 재인용).

3	제주43연구소	10년	50대	43유적지
4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5년	40대	43유적지
5	문화관광해설사	10년	50대	43평화공원/너븐송이

<표 2> 주요 질문 내용

대 질 문	소 질 문
코스설계 주체	- 해설자 본인이 설계 - 방문객 요청에 의한 해설자 설계
해설방법	- 역사적 사실 중심, 사실 전달형 - 사건의 재해석과 마을의 주요 역사자원 병행 해설 - 대상에 따른 해설 내용의 차이(연령, 계층, 직업)
핵심테마	- 해설시 핵심테마 유무
자료의 활용	- 역사자료 중심, 증언자료 중심
사전 준비	- 코스답사(소요시간, 주변환경, 이동방법) - 해설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유·무

III. 연구대상 개관 및 조천리 역사문화자원

1. 조천마을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조천(朝天)리 명칭은 14세기 초 조천관(朝天館)이 설치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조천이라는 의미는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순한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나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17세기 경 제주목을 좌면·중면·우면으로 나눌 때 조천읍은 제주목 좌면에 속하였다. 1874년 제주군 좌면을 신좌면과 구좌면으로 분리할 때는 신좌면이 되었으며, 1935년 제주 지역 내 면 이름을 바꾸면서 신좌면이 조천면으로 개칭되었다³⁾.

조천읍 조천리는 3·1만세운동의 고장이며, 조선시대까지는 육지부와 왕래하는 주요 관문이었다. 당시에는 제주의 2대 관영포구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조천리 출신 인사들이 전통적으로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외부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의 항일운동은 조천면의 1919년 만세시위운동으로 절정에 달하

3) 디지털 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에서 2020.7.22 인출

4)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151.

였다. 조천만세운동을 겪은 조천 지역은 1920년대 이후 수많은 항일운동가를 배출하였다.⁵⁾ 이처럼 조천리는 1919년 제주지역 독립 만세운동의 발원지로서 해방 이후에는 자연스레 제주도 사회운동과 43무장봉기를 주도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43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조천중학원생 김용철 고문치사 사건도 조천지서에서 발생했었다. 조천중학원은 43봉기에 참여한 청년 교사와 학생들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에 항상 군인과 경찰의 주목 대상이었다. 한편으로는 면사무소와 조천지서가 있어서 무장대의 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2. 조천마을의 역사문화자원과 장소

조천리 장소기억의 재현을 위해서 자원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역사자원을 비롯한 산업자원, 생활자원, 민속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에서 자원의 유형분류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자원분류 유형

연구자	유형
손로·윤지영	물리적 자산, 환경적 자산, 역사문화적 자산, 생활자산, 정서·상징적 자산
남양희	자연(배경), 생가건축물(배경), 인물, 일화전설(사건), 생활상 및 소품
김봉·송성진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위탁적 관광자원
배진희·권기창	문화, 자연, 산업, 장소시설

자료 : 손로·윤지영(2020: 154); 남양희(2016: 85); 배진희·권기창(2019: 77); 김봉·송성진(2014: 81) 연구를 참조 재구성.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유형구분은 연구를 위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 내에 분포하는 자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과 무형의 자원으로 나누어 조사를 시도하였다. 조사된 자원은 마을의 역사적 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자원, 지리적·지형적 조건에 의해서 제주도내 각 마을의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활자원, 마을의 고유성을 지닌 문화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자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천리 자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역사자원의 경우 유형과 무형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유형의 역사자원의 경우 조선시대 관포였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조선시대부터 현대

5)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252-255.

까지 다양한 소재가 있었다. 특히 유배와 항일운동, 4·3사건 관련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무형의 자원은 항일운동과 4·3사건 관련 유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조천리 주요 역사 자원(유무형)⁶⁾

구분	내 용
유형	조천진성 : 조선 초기부터 방호소와 수전소가 있던 제주9진성 중 하나임.
	연복정 :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
	항인관가옥 : 제주도민속자료 제4-5호로 지정. 전래의 민가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새로운 양식의 기와집.
	금대동산 : 조천만세운동과 관련된 '금대명'비가 서있는 동산으로 비파와 같이 생겨 '금산'이라 했음.
	만세동산 : 1919년 조천 만세운동이 시작된 미밋동산을 성역화 하여 조성된 공원.
	조천지서 앞 밭 : 1948년 12월부터 무장대 협조자라는 이유로 조천리 주민을 학살하던 장소임.
	옛 동방극장 : 4·3사건 때 사형장이었다가 이후 '동방극장'이 지어져 운영됨, 당시 조천에서 가장 큰 건물로 1971년까지 극장으로 운영
	조천집단수용소 : 당시 정미소로 쓰였던 약 40~50평 규모의 건물, 1948년 11월 하순부터 200~300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수용됨.
	조천지서 : 1903년부터 경찰관 주재소가 있었고 1933년 현 위치로 이전, 1948년 3월 6일 당시 조천중학원 2학년 학생 고문치사 사건 발생했음.
	조천중학원 옛터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946년 3월에 설립. 5·10선거 후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대부분 피신, 이후 '빨갱이학교'라 하여 폐원 됨.
	조천야학당 : 1925년 6월 1일 설립된 사회교육기관. 1930년 '불온한 민중계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제의 재판에 회부되어 문 닫음.
	조천비석거리 : 제주도 기념물 제 31호로 지정됨. 조천포구의 연복정으로 가는 길 도로변 '꼭낭'아래에 있음.
	조천연대 : 조선시대 조천진 소속의 연대. 제주도 기념물 제23-5호로 지정. 축조방법이 다른 연대와 달리 거친돌 바른층 쌓기 형태를 하고 있음.
	남강 이승훈 적거주택 : 항일 운동에 나섰다가 일제에 의해 19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배 생활을 했던 곳.
	관음사 터 : 조천리 포구 동쪽에 위치한 옛 사찰터.
	고관사(故觀寺): 1927년 화주 고계부와 강정완이 전남 순천 선암사 제주포교소로 창건하여 제주 4·3 당시 사찰을 강제로 매각하여 조천 면사무소 사용되기도 함.
	조천만세운동가 생가터 : 백응선, 김시은, 황진식, 김희수 등 조천 3·1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들의 생가터.
	조천 항일기념관 : 조천 항일기념관은 제주인의 독립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제주인의 독립에 대한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6)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 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1 - 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참조 재구성.

무형	조천보통학교생 일본국가 제창 거부 사건 : 조천공립보통학교에서 1931년 1월 1일 신년 축하식 때 학생 전체가 국가를 부르지 않은 사건.
	조천리 청소년 항일의식 고취연설사건 : 1932년 2월 4일 조천리에서 소년들을 모아 놓고 일본타도 조선독립 취지의 연설.
	4·3증언채록 : 5인
	4·3관련 주요인물 : 안세훈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요인물 : 김명식 등 다수

조천리 주요 문화자원 가운데 유형의 자원은 설문대할망 신화와 관련된 지역과 신당 등이 있으며, 무형의 유산으로는 벽랑국의 왕녀가 들어온 곳이 조천리 금당이라는 삼성신화가 있었다.

<표 5> 조천리 주요 문화 자원⁷⁾

구 분	내 용
유형	영장매동산 : 설문대할망이 육지와 다리를 놓아주려 했다는 전설, 이곳은 육지와 제주를 직선거리로 연결할 때 제일 가까운 곳임.
	정중당 터 : 정중부인을 모시던 정중당이 있던 곳, 큰 형님은 조천 정중부인, 둘째는 김녕 황세전부인, 막내는 온평리 맹오부인으로 좌정함.
	새룻 할망당 : 당신은 새룻 고망할망이며 계보는 어선과 해녀 수호로 분류되며, 직능은 해신계 뱀신임.
	조천석 : 조천 바닷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로인해 마을에 해를끼칠 인물이 탄생, 이 바위를 감추기 위하여 흙과 돌을 쌓아 정자를 지음(쌍벽정).
무형	삼성신화 : 『영주지』에 따르면 동해 벽랑국의 왕녀들이 들어온 곳은 조천리 금당이라고 전함.

생활자원 가운데는 유형의 자원으로서 불턱과 원담 등 어로와 연관된 자원과 식수를 공급했던 용천수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자원을 활용한 ‘용천수 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7)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에서 2020.7.22 인출 ;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 제주발전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2020.7.22 인출 참조 재구성.

<표 6> 조천리 주요 생활 자원

구 분	내 용
유형	조천포구 : 예로부터 조천마을을 일컬어 조천진, 조천관, 관포라고 불려지기도 했음. 육지를 드나드는 관리들이 이곳에서 풍향을 관측했다고 해서 조천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음
	불턱 : 옛 모습을 간직한 불턱이 지금도 바닷가에 남아 있음.
	원담 :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원담이 있음
	용천수 : 마을 내에 각 용천수를 엮은 용천수길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조천리 증언 자료는 대부분 4·3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조천리는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며, 조천중학원 선생 가운데는 무장대 사령관을 지낸 인물도 있었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증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조천리 주요 증언 자원

증언자	증 언 내 용	관련 장소
한00	4·3성 축조과정, 4·3 당시 민보단 활동	조천4·3성, 조천초등학교, 조천지서 앞
강00	조천중학원 생활, 3·1대회, 조천지서 습격사건, 김용철 고문치사 사건	조천중학원, 조천지서
김00	4·3과 여성, 4·3성	4·3성터
김00	4·3과 여성	-
임00	집단희생과 생환	수용소, 비석거리

IV. 장소기억의 재현과 문화콘텐츠 형성 과정

1. 조천리 자원의 테마별 재분류

원천콘텐츠 이후 전개될 스토리라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천콘텐츠를 바탕으로 거점콘텐츠로 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그 지역의 가치 제고와 아울러 방문객에게 역사·문화·교육적 요소의 제공은 물론 창의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라고 말 할 수 있다(김도영, 2015: 83; 이동미, 2019: 30 재인용). 스토리텔링은 교육성, 정보성, 예술성, 전체성 등 여러 방면으로 재미와 흥미를 느끼도록 개발되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이치현, 2014: 217; 이동미, 2019: 30 재인용). 이를 위해서 발굴된 스토리 가운데 원천 콘텐츠를 설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테마별로 재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여 주제에 맞춰 재배치를 시도하였다. 가장 많은 자료는 항일운동과 4·3사건과 연관된 자료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마을 내에 분포하고 있는 자료를 유형화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조천리 자료는 크게 항일운동, 4·3사건, 생활·민속, 역사자료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8> 조천리 자료의 테마별 재분류

테마	유형자료	무형자료
항일운동	금대동산, 만세동산, 조천만세운동가 생가터, 조천 항일기념관, 조천야학당	조천보통학교생 일본국가 제창 거부 사건, 조천리 청소년 항일의식 고취연설사건, 항일독립운가
4·3사건	조천집단수용소, 조천지서, 조천중학원 옛터, 조천지서 앞 밭, 고관사	4·3증언채록(4·3과 여성)
생활·민속	황인관가옥, 옛 동방극장, 엉장매동산, 정중당 터, 새꽃할망당, 조천석, 조천 포구, 불턱, 원담, 용천수	삼성신화
역사	남강 이승훈 적거주택, 조천비석거리, 연북정, 조천진성, 조천연대	-

2. 장소 분석

장소분석은 마을이라는 동일공간이지만 자원이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서는 콘텐츠로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활용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된 자원이 마을 내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천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조천읍에 속하며 제주시내에서 동쪽으로 12km 위치에 있다. 조천리는 해변을 끼고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중산간으로는 양천동, 신안동, 봉소동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동쪽으로는 함덕리, 서쪽으로는 신촌리와 인접해 있다. 조사된 자료를 나타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조천리 자원 분포도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살펴보면 마을 동쪽지역에 집 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자원은 관포였던 조천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항일운동은 역사현장인 만세동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43사건의 경우는 조천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천지서를 중심으로 자원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주요 자원이 마을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 분포하는 생활, 민속 등의 자원을 고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마을 동쪽은 역사자원, 서쪽은 생활자원 중심으로 장소기억을 연결시킴으로써 마을 문화콘텐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3. 해설사 심층면접조사

역사자원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의 재해석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지역문화 콘텐츠 형성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스를 설계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코스설계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해설사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해설사 면접을 통해서 역사자원을 활용한 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역사자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도내의 경우 43해설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 43해설 경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5명의 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면접 대상자 선정은 현재 도내에서 43

관련 해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1~2인을 선정하였다. 대상자 그룹을 살펴보면 43연구자, 문화관광 해설사, 43마을길 해설사, NGO소속 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표 9> 해설사의 면담내용

대 상	면담 내용
면담자1	- 방문객 요청에 맞게 코스 설계, 이미 검증이 된 코스를 중심으로 구성 - 사전 학습이 된 경우 질의가 다양하지만 둘 다 참여도는 높음 - 중심테마는 없고 참가 대상에 맞게 일부 코스를 생략하거나 보완하는 정도 - 역사적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설명 - 고문치사의 경우 과거의 사건과 현대의 민주화운동 등과 연계시키면서 함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념관을 중심으로 주변 코스 설계 - 감성을 넣고 해설하면 방문객 몰입도가 높음, 기록자료 보다 증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 - 왜곡이 아닌 경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
면담자2	- 차량으로 이동해서 조금 걷고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식 - 해설이 편한 인원 15~20명, 보통은 버스에 맞춰 30~40명 사이 신청 - 해설은 사실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추가함 - 북촌은 여성,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 - 알뜨르는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향일, 유배, 바람, 먹거리 등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설 - 특별히 테마를 갖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방식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함
면담자3	- 참가 단체 특성에 맞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도내 관련 단체와 연결 - 기본 코스만 제시하고 참가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현대적인 사건과 연결시키기도 함 - 시간과 코스를 설정하고 가는 방식이라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해당 사건 및 장소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 - 사건 중심이라서 여성들이 몰입도가 높은 편임
면담자4	- 참가대상에게 기본 코스 제시 후 참가자 의견을 수렴하여 코스 확정 - 희생터, 은신처, 주둔지 등 골고루 하나씩 포함되도록 설계 - 주제가 같으면 다른 지역 사례도 차용함. 보통은 그 마을 중심으로 진행. 주제에 맞게 융합시킨 해설이 필요 - 참여자 반응도 중요. 반응을 보고 현장에서 해설의 방향을 재설정하기도 함 - 핵심적인 주제를 정하여 스토리를 만들어 해설, 해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새롭게 설계해야 함 - 기본 해설서는 초보 해설자에게 매우 필요

면담자5	- 교훈과 관련된 국내외적인 상황을 적절히 끌어들이 수 있음 - 시와 노래 등 예술적 재료를 적절히 활용함 - 마을의 역사, 민속, 자연 등을 함께 설명하면 해설 내용이 풍부해짐 - 희생터, 학살터, 비석 등 유형별로 해설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음
------	---

심층면접 조사결과 코스의 설계과정은 대부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방문객의 체류시간, 숙소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집단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후 코스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검증되고 널리 알려진 ‘장소성’을 지닌 공간을 연결시켜 코스를 설계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일부 참가 단체의 경우 사전 학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이 없을 경우는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 방문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유는 면담자 1의 경우 '사전에 주제와 관련된 학습이 된 경우는 참여과정에서 질의가 다양하다.' 고 밝히고 있었다. 사전학습과정이 있으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형성된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NGO의 경우는 신청 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역 내 유사한 성격의 단체와 연결시켜 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방문객의 조건에 맞게 해설내용의 다양화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핵심테마의 유무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 모두는 여성, 인권 등 테마별로 코스를 설계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기본 코스를 중심으로 일부 장소를 생략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역사적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른 마을의 유사한 사례를 곁들일 때가 있었다.

단일사건을 중심으로 해설하는 방식과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 민속 등의 이야기를 차용하는 방식 여부에 대해서는 면담자 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면담자 1의 경우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유사한 성격일 때 현재의 사건을 차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이해시키고 있었다. 43사건 당시 고문치사 사건을 설명할 경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과 연계시켜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면담자 2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조건에 맞는 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자연과 민속 자원을 차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해설을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해설자 본인의 지식의 한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 모두는 코스가 확정되면 사전에 답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답사과정에서 스토리 구상을 하게 되고 실제 기행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활용은 모든 면담자들이 증언 자료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유족 등을 직접 현장으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태도와 관련해서 일반 관광객들과 유적답사를 목적으로 방문한 참여자 가운데는 후자가 프로그램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사전 학습이 없는 일반 관광객과 비교했을 때 신청 참여자들은 미리 학습한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해설과정에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관광객의 경우 면담자 1과 2는 ‘일반관광객 일 경우 여행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하며, 여행사의 기본 코스에 4·3사건 관련 지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코스는 동일하게 차량으로 이동해서 걷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코스 구성은 각 마을에 있는 자원을 연결시켜 코스를 구성 할 수도 있고 마을 하나만 놓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 구성이 다양한 원인은 방문객의 조건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선호하는 코스 시간은 반나절 보다는 하루 종일 코스가 많았다. 참가 인원은 15~20명이 적당하지만 대부분 버스 탑승인원에 맞춰 30~40명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일부 면담자의 경우는 방문객과의 교감을 높이기 위해 시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감성적 전달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채록된 증언과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엮어서 전달하고 있었다.

당시 생존했던 인물들에 의한 증언을 활용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증언을 활용하는 방식은 마을해설사처럼 본인 경험담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4·3시기 생활이나, 음식문화, 피신했던 이야기, 당시 마을과 자연풍광 등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참가자의 호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시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와 그 때의 생활상을 방문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쉽게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면담자들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 아닌 경우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확장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면접조사결과,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의 차용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인의 이해수준과 코스 주변의 상황, 현재의 사회 환경, 참여자의 조건 등에 맞게 부분적인 차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을의 역사, 민속, 자연 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삽입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의 부재가 아니라 충분한 자료가 조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코스의 경우 차량과 도보를 연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전달과정에서는 참여자의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감성적 전달 방법이 유용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마을의 경우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잘 보존된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면담자 1은 ‘이런 마을의 경우는 마을길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 방문

객들도 찾아갈 수 있도록 코스설계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적인 장소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해설집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개별 방문객들에게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본적인 해설집은 신규 해설사들에게 해설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V. 조천마을 문화콘텐츠의 형성과 구조

1. 핵심테마 설정 및 스토리라인 구성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43마을해설사는 마을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개시키기 때문에 감동이 있다. 해설자가 43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도 생활문화를 곁들이면 참가자의 몰입도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체험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안내하는데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43체험세대와 같은 감동을 배가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화소가 결합된 스토리라인 개발이 요구된다. 이동방법의 경우 버스이동과 도보이동을 결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버스 이동 후 마을을 탐방하는 이야기코스를 설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개발하더라도 해설 내용은 참여하는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 기본 줄거리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게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마을과 지역주민들의 삶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이 목적임으로 하나의 스토리구성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토리라인 구성을 위해서 핵심 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앞 절에서 조사된 자원을 역사, 문화, 생활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천리 자원의 속성을 살펴보면 항일운동과 43사건 유형에서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자존의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생활·민속자원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원들이다. 역사자원은 마을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테마는 가장 많은 화소를 보여주고 있는 평화, 인권, 자존을 바탕으로 마을의 정체성과 삶이 투영된 화소를 보조 테마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핵심테마와 보조테마를 별도로 구성하고 난 후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보조테마를 결합하고자 한다. 마을공간 분석 결과에 따라 자원 활용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을 동쪽에 분포하는 역사자원에서 출발하여 서쪽의 생활민속자원으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였다.

핵심테마를 마을 공간 위에 선형으로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 핵심테마 : 항일기념관 - 조천지서- 조천중학원 - 금대동산 - 만세운동가 생가터 - 조천야학당터 - 집단수용소 - 비석거리 - 고관사(옛 면사무소)

보조테마를 핵심테마와 같은 방식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보조테마 : 영장메동산 - 연대 - 새룻할망당 - 연북정- 조천포구 - 조천진성 - 정중당터 - 불턱 - 이승훈 적거리 - 황인관 가옥 - 용천수 - 원담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보조테마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이 스토리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 테마 통합 : 영장메동산 - 연대 - 항일기념관 - 조천지서 - 조천중학원 - 금대동산 - 만세운동가 생가터 - 조천야학당터 - 집단수용소 - 비석거리 - 새룻할망당 - 연북정 - 조천포구 - 조천진성 - 정중당터 - 이승훈 적거리 - 황인관 가옥 - 고관사(옛 면사무소) - 용천수 - 원담

작성된 스토리라인 가운데 이동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유사한 자원들은 묶어서 조정하였다. 스토리라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스토리 라인 : 영장메동산 - 연대 - 항일기념관 - 조천지서(조천중학원) - 금대동산 - 만세운동가 생가터 - 조천야학당터 - 집단수용소(비석거리) - 정중당터(새룻할망당) - 연북정(조천포구, 조천진성) - 이승훈 적거리 - 황인관 가옥 - 고관사(옛 면사무소) - 용천수 - 원담

2. 조천리 자원 스토리텔링 핵심요소

앞서 살펴봤듯이 조천리 자원의 스토리라인에는 총 15개의 지점이 연결되고 있다. 이들 스토리라인에 놓인 자원을 핵심테마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면 아래의 <표 10> 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 해설사 면담과정에서 제기된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역사자원과 생활자원 등을 융해시켰다.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감동과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화소를 엮어내는 구성을 시도하였다.

<표 10> 조천리 스토리텔링의 핵심요소

장 소	주요 내용	
	핵심테마	보조테마
영장메동산	신화 속 마을(설문대 설화)	제주의 신화 육지와 제일 가까운 곳
연대	사회적 네트워크(공동체를 지키는 방식)	제주의 방사탑
항일기념관(미릿동산)	한마음 한뜻	제주3대 항일운동 조천 오일장과 만세운동
조천지서(조천중학원)	마을 내 공권력과 주체교육	제주도내 주민 모금에 의한 학교 제주지역 지서의 변천사 조천지서와 조천중학원의 대립
금대동산	스승과 제자의 역사인식(계승)	조천만세운동의 시발점 조선말 유생들의 고뇌
만세운동가 생가터	씨족사회, 혈연사회	조천만세운동 제주인의 항일운동 조천 만세운동과 중심인물
조천야학당터	늦각이 배움과 항일운동	교육체계의 다양화 공존하는 서당과 공립학교
집단수용소(비석거리)	고향에서 소개된 사람들 중산간 마을과 바닷가 마을 사람들 비석거리(선정비의 의미)	먹거리 생산 공장 정미소 저승사자가 머무는 곳(차사 본풀이)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정중당터(새콧할망당)	마음의 안식처(본향당, 해신당) 그들을 기억하는 소지사름	삼성신화와 정중당 신화 새콧할망(제주 뱀신앙의 유형과 의미)
연복정(조천포구, 조천진성)	문명의 출입구 왜구(자원의 침탈)	제주의 관포, 제주의 교통
이승훈 적거지	문화 수용과 배제의 원리 조천주민의 의식세계	유배인과 제주사람
황인관 가옥	제주초가와 양반가옥	돌집에서 태어나고 돌밭에서 사는 삶 제주의 주거문화와 주민의 정신 세계(안거리와 밖거리) 과거의 올레와 현대의 올레

고관사(옛 면사무소)	신앙생활의 수난	제주불교와 4·3
용천수	자원 나눔과 보존	제주의 물 문화 조천리 용천수 길 공유자원 관리(배제하지 않으나 관리 의무)
원담 · 불턱	노력한 만큼 이용할 권리	불턱과 여성(4·3과 여성) 제주의 돌담(밭담, 집담, 성담, 산담, 4·3성) 동아시아의 원담

VI. 결 론

제주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민들이 오랜 시간동안 향유했던 공동체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사회구성원이 크게 바뀌고 문화 지형이 달라진 시대에서 제주가 고향이 아닌 또 다른 마을 주민(정착주민)들의 문화적 가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역사, 생활, 민속 등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해설자의 면담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을 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원을 중형으로 엮어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체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을과 마을 주민들에 의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과 재구조화의 방법을 거쳐 주제가 있고 다양하게 변용이 가능한 스토리텔링이 요구된다. 마을의 정체성은 역사나 문화 어느 한 분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작업이다. 사람 또한 과거의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될 때 마을 공동체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알려진 제주4·3사건의 경우 단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테마를 추출하고 방문객 층위에 맞게 변용하여 흥미롭게 전달 할 필요가 있

다.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미래 가치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장소를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마을문화콘텐츠 형성구조를 제시하였다. 마을자원을 재구성하여 마을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자원을 조사하여 유형화 하였다. 조사된 자원은 재분류의 과정을 거쳐 핵심테마를 설정하였다.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테마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다. 제안된 스토리라인을 중심으로 핵심테마와 보조테마를 연결시켜 스토리텔링을 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마을의 다양한 역사, 민속, 생활 등의 장소기억의 재현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형성구조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장소기억의 재현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따라서 조천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라인과 스토리텔링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거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는 전문 작가들에 의해 좀 더 생동감 있는 스토리텔링 작업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봉-송성진, 2014, 『관광지리 자원론』, 大旺社.
- 김석윤·김태일, 2012, 「제주4·3 Dark Tourism 방문객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4·3평화공원 및 너븐숭이기념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濟州島研究』 제37집, 87-118.
- 남양희, 2016, 「전통마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활성화」, 『지역과 문화』 제3권 제1호, 1-22.
- 류임량, 2016,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영호, 2010,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4), 263-271.
- 박진한, 2018, 「근대화산업유산'을 활용한 산업관광과 장소기억의 형해화-일본 에히메현(愛媛縣) 니하마 시(新居浜市)의 벳시 동산(別子銅山)을 사례로」, 『일본역사연구』 제48집, 361-389.
- 배진희·권기창, 2019, 「장소성 강화를 위한 '안동포마을' 공간스토리텔링」, 『지역과 문화』 제6권 제4호, 73-97.
- 손로·윤지영, 2020, 「슬로시티 인증 마을의 장소성 구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1, 152-164.
- 오성환, 2013,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가치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2), 171-220.
- 왕휘휘·홍관선, 2018, 「장소기억에 기초한 산업유산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3), 230-234.
- 이동미, 2019, 「관문점 및 주변 DMZ 지역의 스토리텔링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과 문화』 제6권 제4호, 23-45.
- 임대근, 2014, 「문화콘텐츠 개념 재론 再論」, 『글로벌창의문화연구』 제4호, 10-21.
- 전영준, 2015, 「제주의 역사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 창출」, 『탐라문화』 제60호, 165-194.
- 정유진, 2018, 「장소기록과 기억 그리고 로컬리티-대구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와 재현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9-121.
- 정창권, 2010,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 제주발전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 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1 - 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 하혜경·김한배·조운승, 2018, 「장소기억에 나타난 진주성(晉州城)의 경관이미지 변화-문헌분석 및 개인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10호, 105-122.
-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8, 『조천읍 역사문화지』.
-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egional Cultural Contents by Reproducing
Place Memory

: Focused on the case of Jo-cheon Village in Jeju

Kim, Seok-Yun* · Kim, Eun-Jung**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around the world to restore spaces that are permeated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 public lands and call places of memory to form cultural contents. By actively attracting and reproducing memories of places, the tendency to create cultural contents is being strengthene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using cultural resources in Jeju should contain the spiritual world that local people have enjoyed for a long time. As the members of the village community change greatly, the perception of the village's uniqueness and history is also changing. Therefore, the use of village resources should be able to share the cultural orientation of the newly relocated villagers based on the history of the community.

Jocheon-ri, Jocheon-eup, is the hom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until the Joseon Dynasty, it has distributed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s a main gateway to and from the mainland. The Jocheon-ri area was one of Jeju's two largest state-owned ports until the Joseon Dynasty. These social conditions have traditionally been a factor that people from Jocheon-ri are more receptive to foreign culture and actively enter the foreign region.

In this study, we seek ways to reinterpret and reconstruct the place of events and memories that affect the lives of the villagers and transform the village resources into cultural contents. For this purpose, village resources were investigated and categorized. The investigated resources were re-classified and the core theme was set. Since then, the storyline has been constructed by adjusting and integrating auxiliary themes around core themes.

Through this, the method called storytelling was appli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identity of the residents and convert them into cultural contents. By

* Chief Researcher, Public Policy Institute for Sharing(PPIS) nanaum

** Researcher, Jeju Research Institute

presenting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cultural contents of the Li unit village, we aim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place memory to be used as a major resource.

Key Words :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storytelling, local cultural contents, placeability, Jocheon-ri

교신 : 김은정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제주연구원)
(E-mail: kk000326@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0. 07. 08

심사완료일 : 2020. 07. 27

게재확정일 : 2020. 08. 07